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0 12 월호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군에 몸담고 있는, 출타중인
모든 곳에 있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현교회새성전조감도
BIRD'S-EYE VIEW OF CHUNG HYUN CHURCH



한 해의 결산

우리는 매년 연초가 되면 한 해의 설제도를 가지고 의욕있게 출발하지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숙연해지곤 한다. 필경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고후 5:9) 십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루를 점검해야 하고, 한달을 평가해야 하고, 일년 동안 행한 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빛나간 일은 회개하고, 열매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66일의 하루 하루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의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시면서 고백한 간증은 우리들의 하루의 생활, 일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며 점검표(Test Point)가 되곤 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에 따라 우리는 1980년도의 우리의 생활을 3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을 했나?

바울 선생님은 일생동안 “싸움”을 했다고 고백한다. 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타인과의 싸움이요, 환경과의 싸움이요, 사명과의 싸움이요,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 싸움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요, 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싸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음을 고백했다.

그의 싸움은 세상에겐 정복당한 패배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

복한 승리의 싸움이였다. 우리도 한 해동안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건강과 재산을 투자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우기는 했으나, 그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 전리품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얼마나 했나?

바울 선생님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길을 탈선없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뛰어 결국은 결승점에 골인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코스를 완주하기 위하여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일심으로 뜻을 향하여 질주하였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기도 했지만 광야의 길이기도 했으며, 좁은 길인 동시에 홀로 가는 적막한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끝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한해동안 뛰면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혹 엉뚱한 곳으로 질주하여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코스를 얼마나 뛰어 왔는지? 이제 그 영광의 골 라인이 눈 앞에 보이는지?

셋째, 어떻게 했나?

바울 선생님은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하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믿음의 법대로 했다”고 고백한다. 그의 앞길을 환난이나 곤고나 킁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막는다 할찌라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법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찌라도 끝까지 믿음의 법대로 싸웠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믿음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죄의 법이 믿음의 법을 정복하도록 방관하지 않았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믿음의 법이 가지는 구속력은 약화되지 않았는지?

이제 바울 선생님은 그의 일생을 결산 하면서 그를 위하여 배풀어질 생대한 서상식을 사모하고 있다. 한해동안의 결산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우리의 기대는 어떠한지? 상받을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니면 십판의 재책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1980년을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의 결산보고와 나의 결산보고를 필히 비교하면서 하나님앞에서 한 해를 결산해 보자.(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 권 제 11 호
통권 83 호

— 12월호 차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한 해의 결산	주 간 · 2
이달의말씀 자각있는 졸업자	김장인 · 4

특집 I / 성 탄 절

• 성탄동화	박홍근 · 6
• 예수님 탄생의 년, 월, 일	김연이 · 8
• 성탄절을 맞는 성도의 자세	김창근 · 10

특집 II / 특별 좌담회

• 1980년을 보내면서	강순용 · 김기정 · 윤종성 · 12
오진국 · 오태희 · 이응선 · 이태규 · 조선근 · 조현명	

특집 III / 새 성전 건축

•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최 환 · 22
보 고 문 제주도 차량선교를 다녀와서	조준상 · 26
찬송가감상 참 반가운 신도여(새 134장)	김하진 · 29
도서정보 10월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29
칼빈주의 경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②	김하진 · 30
선교월보 10월중 선교지 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32
구역소식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편집실 · 34
권찰수첩 가정 심방에 대한 재인식 (3)	김원남 · 35
답 한 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승근 · 39
교회소식	편집실 · 36
교회소식 1980년도 교회 주요일지	편집실 · 11
12월 행사	편집실 · 38
편집하고나서	편집실 · 38
표지설명 /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한 충현에 속한 모든 충현의 식구들에게 크리스마스와 함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의 염원인 새 성전 조감도를 칼라로 담아 보낸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자격있는 졸업자

〈단 1 : 17~21〉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과 같은 자격을 갖춘 졸업자를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성도로 살아 봅시다」입니다.

전 7 : 8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좋은 목적을 세우고 지혜로운 설계를 그려놓고 그 설계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요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니엘이 졸업식을 할 때에 얼마나 자격이 인정되었는지 함께 생각하여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새해에는 훌륭한 설계를 그려 예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여생을 자격있는 성도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606년에 바벨론 느브갓네살이라는 임금의 유대 땅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의 많은 왕족과 귀족과 훌륭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다니엘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20살도 안된, 귀족집에서 대접을 받으며 살던 소년 다니엘은 원수의 억센 손에 끌려 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재산도, 희망도 없습니다. 억울한 저주의 욕을 한없이 먹다 가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천지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버리시니 나는 살아갈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니엘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여 3년을 공부시켜 국비생으로 삼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다니엘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3년 공부가 끝나고 마지

막 심사가 있을때 그는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 다니엘이 훌륭한 자격을 얻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1) 신앙양심에 때 묻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나라가 망하고 내 몸이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지라도 민족양심에는 때울 수 없다」하면서 신앙양심이 깨끗하여 때묻지 아니한 생각으로 공부했더니 남보다 10배나 더 놀라운 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자격자로 만든 첫째 비결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임금님이 주시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에서 주시는 것이니 못 먹겠습니다. 신앙양심을 생각해 보니 우상의 제물은 못먹겠고 망한 나라의 고통받는 민족을 생각해보니 임금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양심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그 결심은 공부를 못하고 쫓겨나면 쫓겨났지 신앙 양심과 민족양심에 때묻히며까지 출세할 마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격자가 됩니까? 실력있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누가 실력자가 됩니까? 신앙양심에 때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민족양심에 때묻히는 것을 죽음으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죄악에 때묻지 아니한 사람이 영의 눈이 밝아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바른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자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 착실히 배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것을 착실히 배웠습니다. 뛰어나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1등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모든 박사과 술객, 지식인보다 10배나 더 아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을 때에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포로가 국비대학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찬송을 드리면서 교만의 그림자도 없는 사람이 곧 다니엘입니다.

(3) 친구를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친구를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때에 임금님에게 찾아가 같이 포로로 잡혀와 같이 공부한 친구 세 사람을 도지자로 추천해서 세 친구를 성공 시켰습니다.

같이 공부하다가 앞서면 떨어진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들을 끌어 올려주기에 애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4) 하루에 세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조상이 범한 죄값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보는 날을 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박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출세 속에서 친구를 끌어 올리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중상모략하여 반역자로 몰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밥을 만들지 않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었습니다.

3. 자격을 얻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으며 친구에게는 혜택을, 민족에게는 위로를 끼쳤습니다.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만든 임금님이 다니엘의 족속 이스라

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일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배당 짓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을 못받은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고 후손에게 저주가 됩니다. 자격을 갖춘 다니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친척과 친구와 민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었고 후세에 산 증인처럼 교훈이 되었습니다.

(2) 의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성공한 후에 하늘 나라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일곱 사람 의인을 이렇게 꼽습니다. 노아, 욥,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의인 중에 꼽히는 일곱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금년에도 거의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사셨습니다. 신앙양심에 때문이지 않으려고, 민족양심에 때문이지 않으려고 고생해 보셨습니까? 과거가 다니엘보다 못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격자가 되기 원하는 설계를 그려 예수님 앞에 결재를 받으십시오.

충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높이며 삽시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면서 살아 봅시다.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죽읍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고 민족장래에 길을 열어 놓는 하나님의 기도예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위해서 잘한 것은 더 잘 하시고 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아름다운 설계를 그리시어 금년의 나머지 동안에 예수님 앞에 결재를 받으시고 새해를 맞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성탄특집 / 크리스마스 동화 □

형일은 한 달전부터 아이가 싹 달라진 것처럼 집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아버지의 구두를 쓱싹쓱싹 닦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깨끗이 청소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형일아, 네가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는지 참 모를 일이구나……”

하고 웃으며 수고했다고 오백원을 줍니다.

그러면 형일은 당장에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저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심부름 시킬 것 없어?”

하고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웃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니에게서 받았읍니다. 그러나 형일은 카아드를 두 장만 사고 나머지는 모두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보내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밤에 자려고 할 때

“형일아 너 요즈음 열심히 저금을 하는데 뭘 사려고 그래?”

하고 누나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몰라도 돼”

하고 웃으며 형일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물론 몰라도 돼. 그래도 궁금하단 말야.”

“아무리 궁금해도 말할 수는 없어. 누나는 이렇게

생일보다 더 기쁜 날

박 홍 근

(아동문학가)

“글쎄다. 요즈음 네가 너무 열심히 엄마를 도와줘서 뭐 일이 있어야 하지”

하고 어머니는 입가에 웃음을 담고 말합니다.

“엄마 왜 없어. 시장에 갔다 오라든지 또 약방에 가서 약을 사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찾아 오라든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형일이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니도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돈을 줍니다. 한번도 싫은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일이가 돈을 쓰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저금통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한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누구에게도 비밀입니다. 한방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자기도 하는 6학년에 다니는 누나에게도 비밀입니다.

며칠전에 누나가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사가지고 왔읍니다. 그때 형일은

“누나, 난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안보내겠어. 미국 삼촌에게와 부산 성오에게만 보내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이렇게 말로 할거야”

하고 말했읍니다.

물론 형일이라도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살 돈을 어머

생각하면 돼. 뭐냐하면 우리 형일이가 요즈음 참 열심히 저금을 하는구나. 아마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말야.”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께. 빨리 자거나 하자!”

하고 누나는 전등을 끈 일도 있습니다.

형일은 자기의 계획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형일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바른 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성경귀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형일은 그동안 그같이 해왔습니다. 형일이네 동네에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위에는 높은 할아버지가 깡통을 앞에 놓고 언제나 앉아 있습니다.

형일은 돈이 있을 때마다 동전 몇십씩 깡통에 넣었습니다.

그날도 형일은 동전 두뉘를 달락 소리나게 할아버지의 깡통에 넣었습니다.

마침 앞에서 오던 남자 대학생이

“허, 그 꼬마 제법인데……”

큰소리로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읍니다.

그때 형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읍니다. 어쩐지 부끄러웠읍니다.

그리고 왼손이 하는 것을 바른 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겠어)

형일은 육교를 막 뛰어내렸습니다.

그 후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날 형일에게는 쓰고 남은 동전이 몇 닢 있었습니다. 육교에 오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깡통에 돈을 넣지 않고 지나버렸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뒤돌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옳지 됐다' 하고 되돌아서서 할아버지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육교 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육교 끝에 가서 선 형일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애, 너 형일이 아니냐. 거기서 팔하니?"

하고 어떤 아주머니의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의 친구인 해원이네 어머니였습니다.

"동무를 기다려요"

하고 형일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하고 아주머니는 육교의 층층대를 내려갔습니다. 형일은 '휴우'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육교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됐어.!"

형일은 뛰어가서 깡통에 돈을 넣었습니다.

오래전 형일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고아의 신세가 된 어린 삼형제의 이야기를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얼마후 아버지도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열 두살짜리 누나와 어린 동생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굶주리게 됐고, 연탄도 피우지 못하는 찬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세 아이들의 처지를 가엾게 생각한 이웃들이 밥도 갖다주고 또 라면도 갖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동네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 조그마한 구호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된다고 아나운서가 말을 맺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형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형일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가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일이네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산동네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형일은 크리스마스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 그 가엾은 아이들을 도우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형일은 저금통의 돈을 꺼냈습니다. 9천원이 남

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형일은 자기 자신이 대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형일은 시장에서 라면 두 상자를 샀습니다. 그래도 돈은 얼마가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아드도 한 장 샀습니다.

양쪽 손에 하나씩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차 무거워졌습니다. 산동네 중간에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라면상자를 내려 놓고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아랫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일은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찾아가는 아이들 집을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일은 그 아주머니가 지나칠 때까지 산 위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의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누구에게 묻기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형일은 라면상자를 들고 천천히 산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위쪽에서 여자아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일은 그 아이에게 아이들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하고 같이 가.!"

그 여자아이는 어디로 가던 길이었으나 되돌아서서 라면상자 하나를 들고 앞서서 걸어갑니다.

"이집이야.!"

아이들 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블록으로 아무렇게나 지은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불을 쓰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니?"

"응"

어린아이는 "응"하고 짧게 대답을 하고는 찾아간 두 아이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형일리와 여자아이는 라면상자와 크리스마스 카아드를 방안에 밀어 넣고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형일리가 집을 찾아준 여자아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뭘....."

형일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연덕을 막 뛰어 내립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교회에 가야 합니다. 예술제의 마지막 연습을 해야합니다. 어두움이 내려앉고 여기저기 불빛이 바라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형일은 오늘이 생일날보다 더 기쁘게 생각되었습니다. (*)

성경과 역사를 통해 찾을 수 있어



김 연 이 전도사

(청년부부지도)

1. 출생 기원에 대하여

가. B. C. 5세기말 - 4세기초로 본다.

기독교인의 믿음의 주(主)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실 때(年, 月, 日)를 정확하게 알리고 노력함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갈 4:4에 “때가 차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으나 또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준비된 때(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한 세계통일이 이루어진 때, 문화적으로 헬라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 헬라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누구에게나 읽혀진 때, 유대교 회당이 각 곳에서 복음전파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때, 신비 종교가 성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때)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원을 정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인 자료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마 2:1-18을 근거로 헤롯대왕 치세시에 탄생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사가들은 헤롯대왕이 B. C. 37-4년까지 통치했고 B. C. 4년 봄에 악질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주의 탄생은 기원전 4년 봄 이후의 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2) 눅 3:1에 보면 디베로 가이사라 위에 있는 지 열다섯 해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세례를 전파했다고 한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기 전 약 반년간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황제 디베로가 그의 의부(義父)인 황제 아우구스도(Augustus)와 공동으로 장치를 하게 되었던 해 즉 기원 11년에서 통산하면 황제 디베로의 치세 15년은 기원 26년에 해당되며 만일 요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그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해 12월이나 다음해 1월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는 30세쯤(눅 3:23)이었다.

그러므로 기원 26년에서 30년을 소급해서 계산해 보면 기원전 4년이 되는데 누가는 30세쯤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4년이 시작되기 수일전 즉 기원전 5년 12월말 경으로 생각된다.

3) 요 2:20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은 46년동안 지었다고 말했다.

요세프스 사기에 의하면 헤롯대왕은 기원전 37년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즉위 18년만에 성전재건을 시작했다 한다.

기원전 37년에서 18년째 되는 해는 기원전 20년이고 이로부터 46년 되는 해는 기원 26년이므로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쯤이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4년경이 된다.

4) 눅 2:2에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위한 칙령을 내린 기사가 있다.

기독교인 이외의 사람들은 누가가 구주 탄생의 시기를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 영역내에서 인구조사 즉 파세 목적으로 호적등록을 하게 한 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대해 그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오라고 비난한다. 이 호적등록은 기원 6년에 행하여져 팔레스틴에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예수는 그보다 10년이나 전에 나섰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누가가 예수 탄생시기를 잘못하여 연대적으로 파오를 범하였다고 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가말리엘이 인구조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요세프스가 기원 6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이것을 보아 기원 6년에 호적조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는 기원 6년에 행한 호적조사와 예수님 탄생시의 호적조사를 신중하게 구별해서 그의 복음서 2장 2

절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 때에 행해진 최초의 조사이며 구레뇨는 그 당시 수리아 총독이었다.

나) 로마인은 매년 14년마다 이와같은 대규모적인 인구조사를 행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언제 제정된 것인지는 일반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알 수 없다. 성경이나 요세프스의 저서 이외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인구조사 제도가 기원 20년경에는 로마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음이 실증된다. 거기에서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5:37에 있는 인구조사가 실시된 해 즉 기원 6년이 되며 또한 이 기원 6년에서 다시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 세계적인 인구조사를 위하여 기구를 정돈하고 필요한 많은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8년이 된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험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구도 충분히 되어있지는 않았으므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각 지방의 영토에 있어서 기원전 5년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여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 구레뇨가 기원 6년에 수리아 총독이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나 구주가 나신 기원전 5년경에 이 총독의 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증거가 있는가의 여부는 의문시 되어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시 구레뇨는 수리아에 있었고 설사 총독이라는 칭호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수리아 로마군을 통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근년의 증거 발견과 연구결과로 명백하게 되었다. (눅 2:2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다」가 아니라 단지 「구레뇨가 수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다」로 된다)

또한 구레뇨가 두번 총독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Zumpt의 학설도 있다.

나.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원에 4년의 차이가 생겼는가?

기원 526년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가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우스(Dionysius Exiguus)에게 서방교회를 위한 표준월력을 만들게 했는데 디오니시우스는 눅 3:1을 잘못 해석하여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열다섯 해를 전 황제인 아우구스도가 죽은 다음부터 계산하여 15년째로 하였다. 황제 아우구스도는 기원 14년에 죽었고 아우구스도의 죽음의 기점으로 하면 디베로의 재위 15년은 기원 29년이 되며 그 이듬해인 기원 30년에 예수님은 대개 30세였을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는 디베로가 황제 아우구스도와 공동으로 정지한 연대, 즉 기원 11년을 기억지 못했던 것 같다. 기원 11년에 즉위하면 15년 되는 해는 기원

26년이 되며 이때 예수님은 30세가 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4년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2. 성탄일 - 12월 25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실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나 그날이 어느날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Christmas, 독일에서는 Weihnachtsfest, 불란서에서는 Noel이라고 불리는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이 됐는가?

가) 어떤 이는 눅 1:5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봉헌순서가 10월 3 - 9일이므로 세례요한의 출생일은 다음해 7월 20일경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6개월 후인 (눅 1:36) 다음해 1월 20일경이라고 한다.

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시 아담을 여섯째 날에 지으셨으니 둘째 아담도 새해가 시작된 여섯째 날에 지으셨을 것이라 하여 1월 6일을 성탄일로 말한다.

다) 아른트(William Frederick Arndt, 1880 - 1957년) 박사는 1항의 근거로 기원전 5년 12월 25일이 탄생일에 가까운 날이라고 한다.

라) 독일사가 모무겐(1817 - 1903)은 제 4세기 중엽 로마교회의 역사가의 책중에서 「가이사과 바우라스의 임기중 제 1년 12월 25일 금요일, 만월로 15일째 되는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 하시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한다.

마) 초기에는 1월 6일을 현현절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를 합하여 그의 성육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다. 이집트와 아라비아 및 다른 팔레스틴 지역에는 1월 6일에 에온(Aeon)의 출생을 기념하는 한고대 축일이 있었다. 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는 날로 대체시켰다.

바) 동방교회에서는 기원 165 - 235년 히폴리투스감독 때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제정했다. 그 날짜는 동지(冬至)에 「불굴의 태양」을 기념하는 데 이교 축제를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과 달, 심지어는 해까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불굴의 태양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교체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상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년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날짜와 연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외부적이고 표면적인 날들에 집착하여 이를 우상화 할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므로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께 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

겸손 · 진실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김 창 근 목사

(장년새신자부지도)

기쁜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눅 3 : 3~6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을 맞는 성도의 자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이 날은 창조 이래 가장 복된 평화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진 새 생명의 날이요, 죄인들에게 대 사면령(大赦免令)을 내려 무죄 석방의 특사를 베풀어주신 날이요, 잃어버린 실락원(失樂園)을 마귀의 세력에서 회복하신 날이며, 신천신지(新天新地)의 새 예루살렘이 문을 여는 날이요, 사망권세가 깨어지고 눈물 고통이 사라지는 안위와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문(門)이 활짝 열려진 우리의 구주(救主)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탄하신 날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탄생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 하였는가?

1)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며 해석하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읍니다.(마 2 : 4 - 6)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成肉身)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2) 헤롯왕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커녕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야욕 때문에 칼을 동원하여 죽이도록 명령하였고 그 칼에 많은 어린 아기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마 2 : 16)

3) 백성들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우수한 줄 알고 교만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고 방종하며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4) 동방 박사들

이국(異國)의 박사들은 발람의 예언을 따라(민 24 : 17) 멀고 먼 길을 찾아와 폭군 헤롯의 면전(面前)에서 새 임금의 출생을 묻는 담대한 신앙 행동과, 귀한 보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였으니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5) 목자들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있는 밤,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따라 강보에 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였으니 과연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교만하던 왕,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 유대인들 보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6) 죄인, 병자, 세리들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멸시아래 외로이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던 사람들입니다.

세째,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1)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눅 3 : 5)

옛날에는 왕이 행차하려면 모든 도로를 정비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이 만왕의 왕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흠을, 탐심, 음욕의 골짜기를, 신행(信行)이 일치하지 못한 부족들을 찾아 매우십시오.

2) 모든 산은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고집, 독선, 남을 멸시하는 마음들을 깎아 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맞이 합시다.

3)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간사와 악독을 버리고 순결하라는 말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1980년도 교회 주요일지 *

1월

- 1월 신년예배
 • 우성원 장로를 공로 장로로 추대
 • 당회 산하의 조직 구조를 1월 2위원 2국 7 위원회로 개편 (당회장실; 감사위원, 인사위원, 사무국, 출판국; 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심방위원회,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여전도회를 1부, 2부로 분리 (1부/만 46세 이상, 2부/만 45세 이하)
 7일 선교부 김영휘 전도사 선교 연수차 동남아 순방

3-12월 단기수련회

- 4월 엘리야 겔간 전도사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
 11월 김창배 장로 장례식
 • 춘계 대집방 시작
 13월 공동의회
 • 장년 새신자부 세례 반 신설

2월

- 14일 새성전 건축허가

3월

- 1월 김영휘 전도사의 귀국
 6월 성경학원 지도자 양성부 1년 과정으로 개편
 27-30일 춘기 성례식

4월

- 6월 부활주일
 8월 새성전 착공예배
 21-24일 청년부 부흥회 (강사/김

근수 목사)

- 21일 성경학원 배설성서 연구반 신설

5월

- 1월 제22대 장로 장립식 (이창업, 김원선, 오진국, 박치민, 정하우, 이병학)
 • 최봉호, 조준상 (남)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13일 제2회 어린이 성가대 합창제 출연 (초등부 성가대)
 15-17일 가정문제 특별강좌 (새가정부)
 20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 제3회 선교대회차 출국 (필리핀의 마닐라)
 26일 기도원에서 부흥사경회 (월 2회) 시작
 31일 김종택 목사 사임

6월 <총동원 전도의 달>

- 7월 김창인 목사 귀국
 16-20일 제6회 농어촌 교회 역자 초청훈련 (충현 기도원)
 24-26일 6·25특별비상구국회개 금식기도 (강사/스탠포드 박사)
 30일 정상우 목사, 강봉선 전도사 사임

7월

- 1월 김원남, 김창근, 장정일 목사 초빙
 3-7월 제9회 농어촌 평신도 초청훈련 (충현기도원)
 6월 제2성가대 발표회 (비발디의 그로리아)
 13일 맥주감사주일

8월

- 11-16일 농어촌 하기 전도대 파송

9월

- 5월 제5회 선교음악회 (고등부)
 7월 교회설립주일 (27주년) 기념음악예배 (제1성가대)
 • 송준일, 임광식, 이태규 장로 및 이신일 권사에게 근속 20년 표창
 • 월간 충현 특별호 발간 (76페이지)
 16일 추계 대집방 실시
 • 김창인 목사 선교지 시찰차 출국 (남·북미 및 유럽 지역)

10월

- 9-12월 추기 성례식
 10월 김재창 목사 파라파이 선교사로 파송
 14일 수도노회에서 남성호, 유재일, 김석원 강도사의 목사안수 및 김영휘, 조준상, 최봉호, 박동실 전도사의 강도사인회
 22-25일 주교 교사 단기 수련회 (신성종목사/로마서 강해)
 28일 위영환 장로 이민 (미국)

11월

- 1월 제3회 성가대합창제 출연 (지휘/정국진, 반주/조희영, 성가/연합성가대)
 16일 추수감사주일
 25일 제1회 군목세미나
 27일 김창인 목사 귀국



더 새로와 적야

□□□... 월간 증현 편집실에서는 1980년을 보내면서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장로...□□□
 □□□...님들을 모시고 1980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며 생각 하...□□□
 □□□...고 반성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석하신 분 외에 몇분의 장로님들...□□□
 □□□...이 더 오시기로 되었었으나 장로님들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다. 이...□□□
 □□□...좌담회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일을 놓고 다시 생각...□□□
 □□□...해 보며 각 장로님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것이다.□□□

일 시 / 1980년 11월20일 오후 7시 - 9 시30분

장 소 / 전도위원회실

참석자 / 강순용 장로 <전도위원회 위원>
 김기정 장로 <건축위원회 위원장>
 오진국 장로 <건축위원회 위원>
 오태희 장로 <전도위원회 위원>
 윤종성 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응선 장로 <교육위원회 총무국장>
 이태규 장로 <사무국 사무장>
 조선근 장로 <해외복음선교회 서기>
 사 회 / 조현명 장로 <월간증현 편집위원회 위원장>



사회 / 조 현 명 장로

사회자 / 바쁘신데 이처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모인 것은 1980년도 1년을 보내면서 1년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을 돌아 보면서 반성과 평가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모두 모신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시간이나, 장소 관계로, 또한 너무 복잡한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해 오셨기에 한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육과 국내외전도, 심방을 포함한 교회의 일반적 상황, 우리의 당면과제인 새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고 회고를 합니다만 정말 1980년은 국내외, 교회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로만 보아도 10년 이상의 임원이던 새 성전 건축을 착공, 그 공사가 착착 진행중에 있고 해외선교면에서도 금년에 두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교역자들의 대거 이동에도 불구하고 온 구역이 안정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 1980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내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교회의 당회 산하 조직기구를 대폭 개편하여 운영 실시한 첫 해이기에 더욱 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보완 발전해야 할 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직

개편에 관한 운영의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변화된 교육위원회관계부터 말씀 해 주시지요. **이응선** / 네, 금년에 교회의 조직기구를 개편한 것과 때를 맞추어 교육위원회 산하 주일학교 15부도 종전에는 유아구름, 청소년구름, 장년과 노년구름등 3개 구름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던 것을 산업전도교육부, 선교부, 새가정부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를 분리시켜 4개 구름으로 나누어 운영한 점이 특색이었고 무엇보다도 제도면에서 이제까지 장로로 임명하였던 주일학교 각부 부장을 올해부터 서리 집사(남)로 임명하였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올해 한 해를 운영해 본 결과는 여러면에서 검토할 수가 있었는데 우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 21일 주일학교 전체 500여명의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집사를 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찬반이 각각 50% 정도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적인 면에서는 부장을

서리 집사가 맡게 되니 교사관리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낀다는 면이 있고 당회와의 연락, 협조면에서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메우기 위해서 주일학교 각부 부장과 교육위원과의 실무자협의회를 월 1회씩 열어 주교 각부 실무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또 교육위원회 장로님들이 매 주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 먼저 기도회를 가진 다음 주일학교 각 부의 예배 및 집회에 참여하여 각 부의 실제적 상황을 확인하며 감독하는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근 /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주일학교 부장에 관한 것도 서리 집사님들에게 중책을 맡기니 서로가 도와가며 잘 해나가고 보다 젊어져 무척 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몇몇 분 외에는 모두가 너무나 여유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위원장이나 해외복음선교회장, 출판국장등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은 더욱 바쁘지만

나머지 장로님들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너무 한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처음에 당회 산하 각 기관의 조직을 20여개 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목적별로 묶어 7개 위원회로 개편할 때 장로님들은 실무적인 면에 너무 깊이 빠져 극히 부분적인 면을 다루게 하는 것보다 교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에서 감독한다는 원칙하에서 일선에서 모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일선에서 빠지게 되니 계획에 참여할 수 없고 진행에서 방관자가 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감독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 준비, 진행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정책이나 감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일선에서 빠지게 되어 현황 파악이 잘 안되니 당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이에 대해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장로님들이 보지 못하고 여기 저기의 일선에서 부분적으로만 뛰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났기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

고 싶습니다. 제도는 이전과 같이 하고 운영면에서는 장로님이 현황 파악 및 확인을 하고 실제 실무적인 일은 부감 중심으로 교사들이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부서는 책임을 맡고 다른 부서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전체를 파악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최근에 당회는 40대의 젊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그저 한달에 한번씩 회의나 하는 일이 고작이라면 교회로서도 하나의 큰 손해가 아닌가 생각되며 또 실제적으로 집사님들을 부장으로 임명할 시 능력이나 통솔력등을 정확히 알아서 그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 하는 점 등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응선 / 예, 지금 조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니 한 10년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부장을 집사로 했다가 집사가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다시 환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당시는 사실 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수립 내지는 지도·감독기관이었다기보다는 주교 각 부

부장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시로 주교각부 부장들과 모든 문제를 직접 만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저희 교육위원회의 장로님들은 무척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 장로님들이 좀 많은 것이 특징인데 다른 위원회에 계신 장로님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조장로님께서 일부 장로님은 방관자가 아닌 방관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많고 늘 바쁘거든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바빴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문제는 장로님들이 일선에 모두 뛰어들어 손수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집사들이 구경꾼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깊이 연구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태희 / 저의 경우도 예전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어 주일학교를 맡았었는데 교육관계의 일을 하면 무척 바쁩니다. 오전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뛰여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니 쉼 한가해졌습니다.

아까 조장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장로님들의 관망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또 선교면에서 평신도선교사 문제를 생각하고 넘어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식 선교사 파송과 아울러 평신도선교사 양성 및 파송을 많이 계획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 순 용 장로

서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 몇가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즉 교육위원회는 한 장로님이 3,4개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파악 및 감독하기가 어려울 줄로 아는데 장로님 한 분이 주일학교 한개 부서를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 대한 확인과 감독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김기정 / 7개 분파로 나누며 장로님들의 중임을 피한다는 원칙으로 배정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읍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험을 살려 교육부 외에 있는 장로님들의 형편을 보아 중임을 하더라도 교육위원을 보강하면 부장을 장로님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거두며 현재의 제도도 살리는 일이 되겠군요.

윤종성 / 주교 각 부장을 집사로 한 것은 그동안 장로님들이 부장을 해 온데 대한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점에도 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교부장에서 장로님들이 벗어나게 되어 한결 시간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장로님들이 일선에 뛰어드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그 보다는 보다 차원을 높여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장로의 권위와 책임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교회일을 장로들이 생각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금년 처음으로 시작한 새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무척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후부터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김 기 정 장로



로운 제도의 운영이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부장을 서리집사로 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변화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 모두의 관심과 염원인 새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2월 14일 건축허가가 나고 4월 8일 착공예배를 드리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이나 문제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점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정 / 항상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무척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후부터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날씨가 좋아서 이런 상태면 12월 중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헌금하고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읍니다. 공사가 마쳐지면 공사비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준비하여 쌓아 둔 돈은 없고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 불황이 겹치고 해서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감사한

것은 공사장에 마련한 기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 현장에 찾아와 찬양기도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근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수요일 저녁만이라도 새 성전 건축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진국 / 건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공사 진행상황은 지하 주차장은 이미 끝났고 금년말까지 교육관은 2층 골조공사까지 끝나게 되고 본당은 지하공사를 끝내고 본당 바닥 공사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위원 및 실무자들의 바램은 현재 공사 발주에서 선교센터는 빠졌는데 아예 선교센터도 골조공사까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마감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말입니다.

공사가 다른 건물과 보조를 맞추어 해야지 나중에 선교센터만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 교회의 건축을 맡은 정우개발주식회사에서 일을 성실하게 해 주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또한 이 회사도 우리 교회의 일을 시작한 후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정 / 당회장 김목사님이 착공예배를 드리면서 축복기도 하시던 기도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

었지요.

강순용 / 또 많은 교인들이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이태규 / 항간에는 내년말쯤에는 교회를 이전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기정 / 언젠가 김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 새벽기도나 수요저녁에 잠시 모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교회 전체가 옮긴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사장 주변의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습시다.

오진국 / 참 힘든 일입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정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건축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이제는 선교관계의 일을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금년에도 연초에 인도에 엘리야 겐간 선교사를, 연말에는 파라과이에 김재창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980년 1년동안 있었던 일을 조선근 장로님이 해외복음선교회 서기 일을 보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말씀 해

주시지요.

조선근 / 네! 이제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것처럼 인도에 엘리야 겐간 선교사를, 파라과이에 김재창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홍콩에서 중공선교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됐고 중공선교를 위해 마카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지로 칠레가 선정 되었지요. 1980년에도 해외선교분야에서는 열심히 일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애굽의 김신숙 선교사를 철수하도록 통보했다는 것과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가 우리교회 특별한 사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어 애써 기반을 잡아 놓은 홍콩 선교부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들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금년의 움직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70년대에는 해외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동포에 치중한 감이 있지요. 물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현재도 인도네시아는 23곳을 정해 현지인을 훈련시켜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합니다. 또한 홍콩같은 곳도 예외가 되지요. 그동안의 노력끝에 이제는 대 중공선교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여러

선교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제 80년대는 현지 선교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그런 관계를 많이 보완하며 선교에 대한 규약도 정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서 떠날 때는 그곳의 한인교회와 연결을 지어 가고, 가서는 그곳의 교포들을 돌보고 하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980년대의 해외선교의 역점은 점차로 현지선교에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해외복음선교회 회원이 금년으로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대학생 이하의 학생은 꽤 숫자입니다. 한 가지 잘 안되는 것은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에 충분한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교회의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행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원들에게는 문서로 알리는 방법 등은 어떨까 하고 구상중입니다.

강순용 / 또 선교면에서 평신도선교사문제를 생각하고 넘어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계신 유병세 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아주 활발히 선교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유병세 선교사님이 외과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 이윤호 권사님과 함께 시간나는대로 대합실, 노방, 병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라파선교사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회인도, 심방까지



이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서는 교회의 이런 형편은 아랑곳 없이 마구 예산을 책정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교회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윤 종 성 장로

도 담당하며 일하고 있다는 이야
기입니다. 물론 유병세 선교사님
내외는 자비량(自備糧) 하시면서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정식 선교사 파송과 아울
려 평신도선교사 양성 및 파송을
많이 계획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기정 / 선교문제에 대해서 한가
지 생각하고 싶은 점은 선교사 선
정에 있어서 너무나 임기응변적
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해
외선교 정책에 의해 선교사를 선
정하고 또한 선교회원의 거의 전
부가 우리 교회 교인인 만큼 그
지원문제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 1~2년이라도 시무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원칙 같은 것
을 정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조선근 /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
부에서 선교에 대한 이상들은 좋
았는데 정책이 있는 것 같으면서
도 어떻게 보면 없고 해서 그동
안 시행착오가 더러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의 교육
과 훈련과 선교지의 문화나 언어,
풍물 등을 다 연구하고 가야 하
는데 시간은 없고 바쁘다 보니까
현지 교포사회를 위해 그때그때
선발해 가게 되고 했는데 이런 문
제도 새해부터는 지양되어야겠지
요.

사회자 / 국내 전도면에서는 어떻
습니까?

오태희 / 전도위원회에는 기획·외
지·내지·특수·총동원분과의 5
개분과로 나누어 일하고 있습니
다. 매년 6월의 총동원전도 등을
통해 전 교인의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고 있고 또한 지교회관

또 한가지 건축위원 및 실무자들
의 바램은 현재 공사 발주에서 선교
센터는 빠졌는데 아예 선교센터도
골조공사까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마감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말입
니다. 다른 건물과 보조를 맞추어
해 놓는 것이 좋거든요.

오진국 장로



리, 각 지회의 전도관계 업무를
관리, 조정해 오고 있는데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앞으로 개발
해야 될 여지가 많은 것이 특수
분과입니다. 특수분과란 사회의
각 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전도 전
략을 펴는 일인데 금년에도 이 특
수분과에서는 군전도, 산업전도,
학원전도, 병원전도, 교도소전도
로 나누어 일을 해 오고 있습니
다.

금년에도 군전도는 매우 활발
하게 진행했습니다. 주로 군목을
지원하고 특히 육군·공군사관학
교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각 부대에 카세트나 월간충현,
전도책자 등을 지원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전도의 측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
가 산업사회고 따라서 산업인구
가 수백만에 달하기에 이 산업전
도에 큰 힘을 쏟는다면 좋은 결
과가 오리라 예상하고 이미 5
년전에 산업전도회와 산업전도교
육부를 신설하여 힘써 온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식부
족이 많고 또한 이 문제는 너무
광대해서 교단적인 측면에서 힘
을 할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금년엔
매월 초하룻날 아침에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조찬기도회로 모여 이
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모은 점
이나 11곳의 직장배배 및 성경공
부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점
들을 보아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전도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이
들에 대한 인식과 장래를 위해 지
금껏 노력해 왔기에 실제 활동
이나 결과면에서는 큰 성과를 올
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 더욱 이에 대한 특
수정책 및 전략이 시급하다고 보
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각
부서의 부지도 교역자들로 팀을
짜서 각 분야를 담당시켜 훌륭한
전도전략을 가지고 특수전도에 임
할까 합니다.

사회자 / 또한 북한선교사업으로
우리 교회에서 금년초부터 차량
선교사업을 펼치고 했는데…… 어
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성과는 어떠한지? 좀 말씀
해 주시지요.

이태균 / 이 차량선교사업은 원래
북한선교회가 주관하여 하는 사
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
주일 동안 지방에 가서 전도활동
을 하고 1주일 쉬고 또 나가고 하
기로 하고 강사는 북한선교회 이
사 목사님들의 교회의 교역자들
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협
조가 안되고 해서 우리 교회 교
역자들이 전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잘 진행됐습
니다. 여러 지방에서 전도요청이
오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신청해
놓고도 잊어버리고 준비를 못 해
놓고 하는 지방도 더러 있고 하
는 형편입니다.

물론 강사나 지방,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매우 좋았다. 그래서 북한선교회의 회원 신청도 많이 받고 온 동네가 모여 은혜를 받고 전도하며 돌아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북한선교회사업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손을 대어 시작할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북한선교사업이 우리 교회의 5대목표 중 하나이니 전도위원회에 북한선교분과를 신설해서 우리 교회가 가능한 북한선교사업계획을 세워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1980년도의 교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교육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도적인 측면은 이야기했고 내용적인 면에서 금년의 교육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금년에는 교육위원회에 성경학원과 도서실, 장학위원회가 흡수되어 일이 많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교육위원장이 도중에 사임하시므로 애로가 많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교육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응선 / 조장로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교육위원회가 주일학교만을 관장하였었지만 올해부터 교회 기구개편에 따라 성경학원, 도서실, 장학회의 일도 관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것은 주일학교라는 단일 영역에서 교인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전체 영역으로 교육위원회의 책임과 활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서는 더욱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 잘 해보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았고 게다가 중도에 교육위원장 정상우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하여 좀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매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일을 돌이켜 볼 때 주일학교 분야에서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은 교사 자질향상에 관한 부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열심, 수준, 자질여하에 따라 주

교 교육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되어 교사 자질 향상과 훈련을 위해 주교 각부나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각부 별로 교사 특강, 기도회, 타교견학, 연구수업, 발표회 등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연초에 단기수련회나 또 지난 10월의 교사단기수련회 등을 통하여 교사의 자질향상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외적 프로그램에 의해 접근해볼 수도 있지만 교사 각 개인 개인의 주님 앞에 헌신도에 관한 문제이고 또한 장기적인 문제이기에도 앞으로 계속 수준높은 교사훈련이라는 점에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분과에서 그 다음으로는 행정문제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해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교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장과 교역자와의 한계선이 뚜렷치 않아 잡음이 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심심찮게 논의가 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은 부장을 중심한 각 처장과 교사들이 담당하고 교역자는 말씀 증거와 교육에만 전념해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는 매년 매두되는 문제이지만 금년도 가능한 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잘 아다시피 여기서는 여쭈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성경학원분과에서는 계획된 교과과정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의 경우는 예년보다 오히려 수준이나 진행, 운영 모든 면에서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농어촌 교역자에 맞는 실



한마디로 앞으로 더욱 이에 대한 특수정책 및 전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각 부서의 부지도 교역자들로 팀을 짜서 각 분야를 담당시켜 훌륭한 전도전략을 가지고 특수전도에 임할까 합니다.

오 태 희 장로

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금년에 팔복할 만한 것은 주일학교 분과중에 장년새신자부에 세례반을 신설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성경학원 분과에서는 지도자양성부 교육기간이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됐고 여름철에는 특별단기강좌를 마련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점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 교역자들의 사임으로 교육담당 교역자의 불가피한 이동이 몇 건 있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 그동안 간간이 문제되어 왔던 복음송(Gospel Song)에 관한 문제를 교육위원들이 정리할 수 있었고 또한 월간충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줌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태희 / 지금 이장로님이 말씀하신 중에 교육과 행정의 분리문제는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 주일학교 전체 500여명의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집사를 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찬반이 각각 50% 정도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 선 장로



고 봅니다. 교역자들이 행정, 행사에 치중하게 되니 자연히 메시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장로님들이 광주지방의 모교회를 견학하고 오셔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느낀 것도 그 교회에 부흥요인중에 하나가 각부담당 지도 교역자가 메시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육과 행정의 명확한 분리는 교역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빨리 우리 교회 전체에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복음송문제를 위한 2차에 걸친 특강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임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지난 월간충현에서도 이 내용을 게재해서 온 교인이 여기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을텐데 하루 속히 교육위원회에서 복음송을 엄선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을 가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성가대나 예배시간에도 아직도 복음송을 부르는 데 이런 면은 예배위원회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성가대의 찬양곡이나 예배시간의 찬양곡들을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응선 / 또 한가지 교육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우리 교회 각부 주일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교사훈련계획 방향등 우리 교회의 주교의 문제점이나 발전시킬 방향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금년엔 전혀 일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4월 8일 역사적인 새 성전 착공예배를 드렸다.)



〈10월10일 김재창목사를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했다.〉 〈10월22-25일 주교 교사 단기 수련회가 열렸다〉

나 기타 교육문제들이 깊이있게 다루어지고 그 방향을 모색해 줘야 하는 곳입니다. 내년엔 교육에 깊이있는 분이 참여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교육연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자 / 이제는 교회 전반적인 흐름과 구역운영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엔 특히 구역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구역담당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의 전부가 도중에 교체되었기에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응선 / 어떻습니까? 구역권찰회나 또는 전도위원회에서는 교인들의 배가운동 계획이라든가 이

런 계획을 가지고 일합니까?

오태희 / 전도위원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응선 /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내 어느 교회는 연초에 각 지구별, 구역별로 전도 및 배가 계획표를 짜서 연내에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가 생기면 그 전도자가 명시되고 전도자가 책임지고 계속 돌보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도중에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지요. 우리 교회는 당회장 김목사님의 영력(靈力) 있는 설교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도위원회나 심방위원회에서 배가운동이나 교인관리등에 보다 신경을 써서 전도나 구역활동등

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규 / 그렇지 않아도 심방위원회에서 그런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역단위를 10세대 미만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0세대가 넘으면 또 나누고 하여 구역을 자주 늘여 나가도록 하려고 구역분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한 다해도 앞으로 구역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성공, 실패를 좌우하게 되기에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응선 / 그리고 이 문제는 당회장님이 오셔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내년부터 구역예배를 폐지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한 다니까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라면 구역예배때 밖에 없는데 이제 구역예배까지 모이지 않는다면 서로 인사도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그대로 하되 강사를 엄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과 특히 그 제도속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잘 소화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제도에 끌려 다니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실천해야 하겠다고 생



우선 구역단위를 10세대 미만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역분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한 다해도 앞으로 구역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성공, 실패를 좌우하게 되기에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태 규 장로

작합니다.

오진국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나 운영도 다 좋지만 교회에서는 각 개인의 신앙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역이 10세대, 5세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이, 나아가서 온 구역원이 어떤 신앙상태인가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신앙심이 있을 때 봉사가 나오고 전도가 되고, 헌금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놓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온 교인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생각해 보지요. 구역철야기도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왜 구역원들이 안 나오니까? 심령이 갈급해서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철야기도 하라"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관계, 불황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림을 잘 꾸려 오신 재정위원장님께서 재정행편을 말씀해 주시지요.

윤종성 /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현재 교회의 경상부 재정이 지난 9월부터 예상보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말까지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자는 우리 교회에 새 성전 건축관계로 경상

이제 80년대는 현지 선교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그런 관계를 많이 보완하며 선교에 대한 규약도 정립하고 했읍니다. 그래서 1980년대 해외선교의 역점은 점차로 현지선교에 둔다는 것입니다.

조 선 근 장로



부 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반 경제계의 침체가 각 가정에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시내의 많은 교회가 같은 형편입니다.

해결방안은 각부에서 보다 긴축하고 경상부 재정을 위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야 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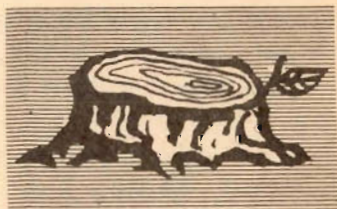
지금 내년도 예산조정을 하고 있는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녁엔 쓰고 아침엔 짓고 하는 형편입니다. 80년도에 예상액이 미달되는 관계로 내년에 추가 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로 내년도에 책정할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한 경비지출을 억제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서는 교회의 이런 형편은 아랑곳없이 마구 예산을 책정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교회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회자 / 이외에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 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여전도회, 권사회, 충현기도원 등 많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을 내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대화를 나눈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은 더욱 귀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는 월간충현에서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일어서려니 우리의 어깨가 한결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동안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리 / 이형수집사

(월간충현 편집부장)





몇차례에 걸쳐서 성전건축에 관하여 소개는 했지만 - 즉 새성전 건축의 기본계획에서부터 마스터프랜(master plan)에 이르기까지 - 공사의 시공계획, 공정 계획에 대해서 소개 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개로 조목 조목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건축기본설계에서 건축허가가 나오기까지

여러 성도님들에게 78년, 79년, 80년도 몇번에 걸쳐서 소개드린 것처럼 새성전 대지가 고등학교 대지로 묶였던 것을 일반대지(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서울시청에 수차례 진정한 끝에 풀렸다는 사실이며 그밖에 여러가지 어려웠던 일은 몇번이고 본 월간 충현지에 실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번이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충현의 모든 성도, 유치부 어린이들로부터 노년부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쉬지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매어 달리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어려웠던 일들을 정해진 시기 시기마다 한가지씩 두가지씩 풀어주시므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볼 때 우리 충현의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일들을 실증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또 현장에 필요한 만큼의 설계실을 두어서 당회장 김창인목사님,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을 앞장세워 건축의 목표를 정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로 기

본설계를 완성하도록 쉬지않고 기도하시며 밀어주셨던 것입니다.

기본설계가 1979년 8월에 완성되었고 서울시청 건축미관심의가 합격되고 건축법적으로도 논현동 신축대지와 건물관계의 도로사정이나 일조건 고려, 높이제한 등등의 여건을 여러번 검토하여 준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얻고자 제출을 해 보았지만 당시 정부당국에서는 부동산경기과열 억제및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거의 전반적인 건축허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종교건축물 1000평이상 규제 대상이 되었던바 1979년 10월 사태이후 그해 11월과 12월에 모든 억제대상의 건축물이 해제되자 즉시 준비해 놓았던 건축허가 서류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당 구청에서는 본청인 서울시청의 시장에게 재가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 하여 즉시 서울시청으로 올려 이를 재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검토한 서울시청에서는 최고 책임자인 당시 서울시장인 정상천시장께서 직접 본 성전부지를 답사하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신 도시 개발 구성 지역개발에 좋은 일이라 하시면서 현재 지적도 상에 나타난 6m 진입도로가 이 큰 건물을 구성하고 사용하기에 좁기 때문에 시청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건축주인 교회에서는 그 도로에 접한 대지를 사서 6m의 도로를 12m의 도로로 넓힐 것을 지적하고 교회 서측에 접한 도로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앞날의 교회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건부로 허가해 줄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조건을 지시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불 때 참으로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본 새성전의 진입로는 서측 압구정동 네거리에서 이어지는 25m 도로에서 불과 200m도 채 못되지만 약 1만여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고 불 때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 외에도 성전까지 들어 올수 있는 도로는 사방으로 11개의 6m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후 1980년 2월 14일 바라고 바라던 건축허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2. 건축허가후 착공예배 드리기까지

건축허가를 득하니 우리 건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조그만 인간으로서 눈물어리게 할 뻔했음을 연발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감사드려야 할 분은 이를 위해 직접 기도하고 뛰어다니시던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님에게도 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거나, 뜨거운 여름에도, 몸에 병이 걸려도 한쪽발은 중풍으로 절름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땀뻑 댄 대지를 푸는 일과 건축허가를 내는데 피나는 노고로 뛰어 다니시던 한영기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은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착공하느냐에 따른 여러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사착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건축회사를 택하여 공사를 하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공사의 발주범위는

① 본당 골재전체 : 건물전체의 콘크리트 뼈대, 동관지붕 의우기, 지하실및 옥상방수 전체.

② 교육관 골재전체 : 건물 전체의 콘크리트 뼈대, 옥상방수까지.

③ 지하주차장 : 지하 1, 2층 콘크리트 뼈대 및

옹벽, 벽체방수 지붕방수까지를 1차공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중요자제인 철근 1000톤과 자갈 모래를 합해서 1270트럭(8890M³), 세멘트 4만포대, 비계목(장목 원목)을 공사에 대비하여 당시가격 약 2억 2천만원이었지만 발주당시에는 오른 가격인 약 3억 1천 9백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도급할 회사들에게 공개하고 현장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장 설명에 응한 회사들은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400개 이상이나 그중에서 굴지회사인 1위부터 30위까지를 선정하여 공사비 경쟁한 중에서 정우개발주식회사가 2십7억4천만원으로 1차공사 낙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즉시 계약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갖추고 1980년 4월 8일 총현의 여러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착공예배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공사 진행 과정

착공예배를 마친 그 다음날에는 여기저기서 가설 사무실, 노무자숙소, 가설창고 짓는 망치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중기는 포크랜 2대, 케이로다 2대가 큰 굉음을 내며 지하실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이 앉을 자리 일대에는 전체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완료되기까지는 4개

본당 지하실 공 ⇨
크리트 작업이 한
창이다.
건너편은 교육관
골조공사 작업광
경.



월이 걸렸으며 여기에 투입된 폭약(다이내마이트)이 수천개가 터트려졌으며 오히려 지하주차장 기초 일부가 연약한 지반이어서 본당에서 8m가 내려가고도 연약하여 4m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둥기초의 총 수요는 396개이며 지하에 매설되어야 할 하수도 배관만도 여러갈래로 묻혀 있으며 이 모든 하수도가 건물내부에 동력 모터를 두어서 처리하면 유지 관리비가 그만큼 더 들기 때문에 모든 배수는 자연구배에 의하여 배수가 되도록 기초 공사시에 완전히 설치 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이 끝나면서 점점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곳에 소요되는 자재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돌을 깎는 콤팩터가 699시간, 도자 981시간, 포크랜 1600시간, 덤프트럭(흙 운반)12226차, 케이로다 26시간이며 자재로는 세멘트 88922포대, 자갈 11085m³ (2015트럭), 모래 7354m³ (1225차), 잡석 439 (73차), 철근 2019톤, 합판 21488매가 들어갔으며 이제까지 전체로 공사에 가담한 인원수는 총 2만5천여명이 참여 했습니다.

공사 계약당시에 기성고의 지불은 1차공사 총공사비 2십7억4천만원중 10억원어치 공사가 진행되었을때 그 기성액의 80%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기성고 지불은 1980년 9월 중순경 8억원 상당을 지불했고 또 2차 지불은 12월 20일경 지불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 기성고 지불 예정 일자를 공정별로 대략 구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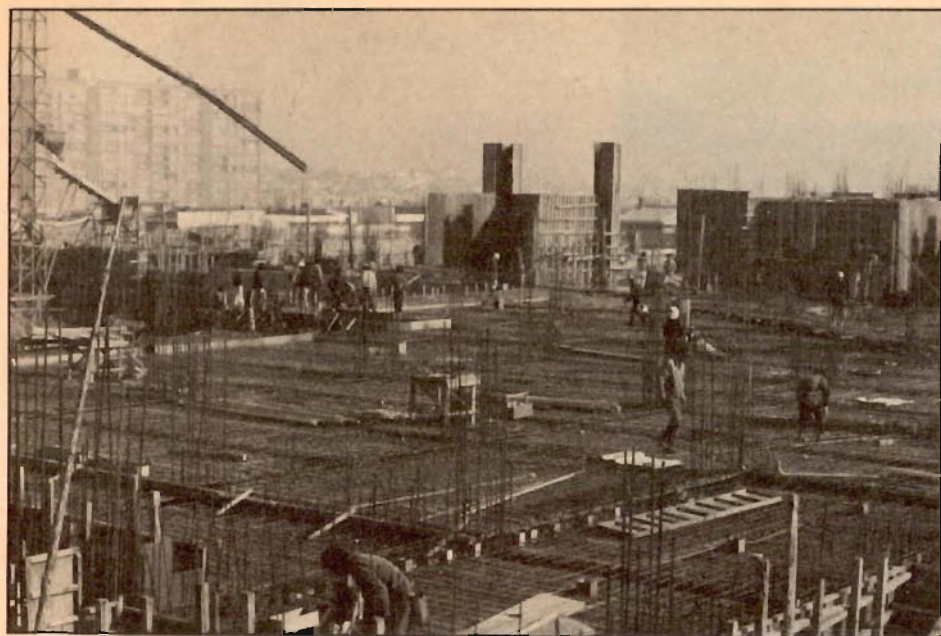
- 1 차기성- 1980년 9월 17일 8억원 지불
- 2 차기성- 1980년 12월 20일 1차기성고 지불후 5억원 정도의 공사 진도에 따라 5억원 지불
- 3 차기성- 1981년 3월 20일 3억원
- 4 차기성- 1981년 4월 30일 3억원
- 5 차기성- 1981년 5월 30일 3억원
- 6 차감성- 1981년 7월 30일 3억원
- 7 차완공물- 1981년 10월 15일 나머지

잔금완불이 위와같이 지불예정인데 1차기성고 지불 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와 눈물어린 헌금으로 무난히 1차기성 지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힘겨울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제까지 연단을 해가며 현재 공정에 이르기까지 진행에도 큰 사고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 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 우리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좌절감을 갖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로 노력하면 개인과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예정된 기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줄로 믿습니다.

4. 앞으로의 건축진행계획

금년도에는 본동 2층 바닥까지를 마감할 것이며 교



⇒ 본당 2층 바닥
깔기공사 장면, 건
너편에 본당의 종
탑과 교육관의 골
조공사 광경이 보
인다.

육관은 3층바닥까지 콘크리트를 완성하면 1차공사
전체 공정의 약 60%이상 된다고 보겠습니다.

선교센터는 1차공사에서 제외되었지만 공사비가
더 오르기전에 금년말 이내로 발주하여 본당, 교육
관, 선교센터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81년도 골조공사 전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며 명년 5월경에는 2차공사의
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공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
습니다.

가. 본당

- 1) 내외부 벽돌쌓기공사
- 2) 내외부 돌붙이기공사
- 3) 내외부 창문 및 문공사(방음문 포함)
- 4) 내부 음향에 따른 벽체 및 천정마감
- 5) 조명, 스피카, 마이크, 비데오, 동시통역실공
사, 통신공사
- 6) 냉난방 설비공사
- 7) 소방설비공사

나. 교육관, 지하주차장

- 1) 내외부 벽돌쌓기공사
- 2) 내부 천정, 벽, 바닥 마감공사
- 3) 문 및 창문, 외부마감공사
- 4) 전기, 스피카, 마이크 통신공사
- 5) 난방공사

6) 소방설비공사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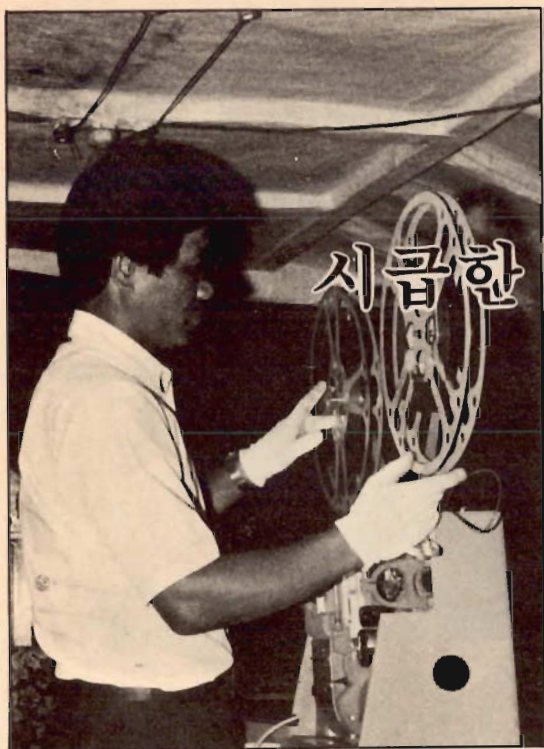
다. 외부 조경 및 도로포장

위에 소개한 한개 한개의 공사가 여러 성도님들이
나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공사를 맡아서 시
공하는 회사가 정성과 땀흘림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하루하루의 기도와 신앙의 열성이 없이는 너
무 나도 멀고 먼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새 성전을 위한

우리의 기도

1.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새 성전이 되
게 하옵소서
2. 새성전에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믿
음 주옵소서
3. 재정을 넘치도록 주옵소서
4. 헌금하는 성도마다 영육간에 부자
되게 하옵소서
5. 북한에 가서도 성전 짓는 날을 주
옵소서
6. 공사를 맡은 회사가 하나님을 두려
워 하면서 성전지어 복을 받게 하
옵소서



시급한

제주도의 복음화

조 준 상 강도사

(선교부 부지도)

먼저 제주도 복음전과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이 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파송에배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1-4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시며 “6·25 사변때 맨주먹으로 피난갔던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우리 다같이 이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도와 성공하고 돌아오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등에 업고 제주도로 출발하였다. 긴 호남 고속도로를 거쳐 카페리호에 승선하여 제주도에 도착하니 밤 10시 30분이 되었다. 미리 연락받은 제성교회 박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제주도 복음화는 시작되었는데 약 한달동안 최봉호 강도사와 김모세 집사와 이상환 형제와 그리고 내가 제주도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다녀와서의 이구동성은 “제주도 복음화는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필자는 제주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생각한대로 진단하여 보고 복음전략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1. 육다(六多)의 제주도

흔히들 생각하길 제주도는 삼다도(三多道)로 알아들, 바람, 여자가 많다고들 한다. 과연 말대로 제주도는 보이는 것이 돌이요, 쉬지않고 부는 것이 바람이요, 활동력있게 활동하는것이 여자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보다도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6일 전도하고 하루 쉬는 날이 있어 이때는 지교회 교역자님의 안내로 관광을 하였는데 산꼭으로는 백록담, 탐라계곡, 삼각봉, 왕관능, 성판악, 어능계, 안덕계곡 등이 있고 폭포로는 천거연, 천제연, 정방, 용연폭포 등이 있으며 동굴로는 금회굴, 만장굴, 협재굴, 신오굴이 있고 기이한 용암으로는 용두암, 외돌피, 성산기, 암오백, 나한 등이 있다. 기타 수려한 수림으로 한라산 천연림과 비자림과 동백과 한란과 철쭉등이 유명하다. 이처럼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국가에서도 이를 개발하고자 제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항구도 국제항구로 만들어 마치 홍콩처럼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한다.

둘째는 굴밭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으로는 이곳에서만 가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남제주군에는 굴밭과 파인애플의 생산지가 준비하다.

연평균 강우량이 1,440mm이며 기온은 14.6℃로써 8월에는 25.9℃이며 1월에는 4.5℃이다. 그래서 눈이라고는 거의 모르고 사는 지방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재미난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집 개는 눈만 오면 짖습니다. 왜냐하면 일년내내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연이 말대로 제주도는 기온이 온화하여 굴생산지의 적합한 지역이다. 이 굴생산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도(道)로 비약하였다. 과거에는 돌 많고 바람 많고 먹을 것 없던 제주도가 이제는 가장 살기좋은 도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남제주군쪽으로 가면 거의 농가가 2층 양옥 최신 문화시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차량선교시 토산교회앞에서 ⇨
교우들과 함께

세째로 미신이 많다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회한하게 생긴 돌이나 줄은 다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더구나 가장 회한한 것은 지금도 뱀을 섬기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영화로 가지고 다니는 “순교보” 영화에 나오는 이기풍 목사님이 뱀을 죽이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마을에는 뱀을 죽이거나 해치면 “사신님(蛇神任)”을 건드렸다 하여 그 사람을 마치 큰 죄인 취급하거나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재봉틀 월부장사가 어떤 마을에 들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뱀을 섬기는 마을이었다. 80여대 재봉틀을 팔고 기본종계 돌아오려는 길에 마침 재봉틀을 싣고 간 차에 뱀이 있어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 동네사람들은 곧 공회를 열어 들어놓았던 재봉틀을 다 돌려주고 벌리 내쫓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신이 많은 곳이다. 특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집회 일정중 제주도 북제주군 초전면 북촌리 북촌교회라는 곳에 들었는데 그곳 교회 유전대 전도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가 이곳에 부임해 왔을때 목욕탕을 지어놓고 3년 이상이나 목욕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욕하려 먼저 들어간 자는 죽는다는 전설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현상금 50만원을 걸어 놓고도 먼저 목욕할 자를 구했지만 없어서 그냥 지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도사님은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 이야기가 퍼져 동네 어른계장이 찾아왔다. 정말 들어가겠느냐고 다구쳐 물기에 정말이라고 대답했더니 온 동네가 비상회의를 열더니 날을 받아 목욕물을 데워 놓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도사님이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문구멍으로 동네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하여 알을 다투어 들여다 보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전도사님은 목욕을 다 마치고 나오시며 “예수 믿으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여 목욕탕 개업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관광자원이 많고 골농사를 지어 돈도 많고 곳곳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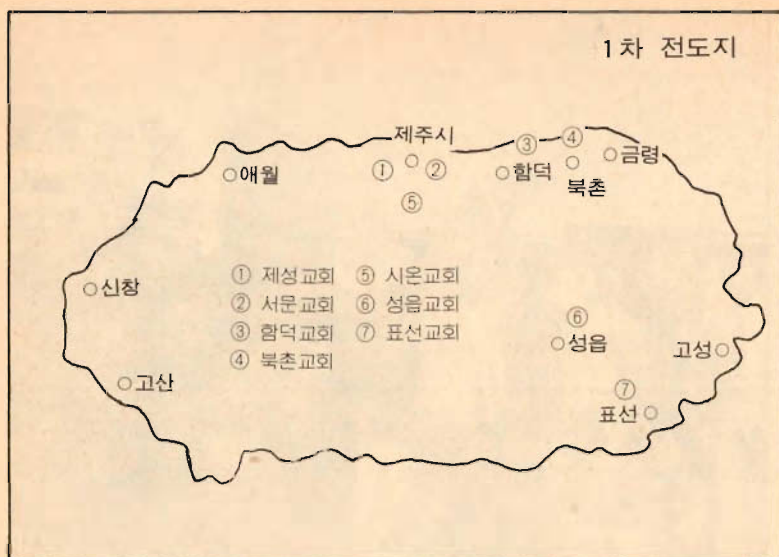
미신이 많아 삼다가 아니라 육다가 아닌가 생각된다.

2. 제주도 교회현황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약 100여 교회의 개신교와 10여 곳의 천주교와 그리고 신흥종교의 세력이 약간 있는데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교단은 예장 통합측으로 약 70여 교회나 되고 있다.

합동측과 통합측과의 분열시 거의 100%가 통합측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예장 합동측은 1968년도 제주도 개성교회를 필두로 개척하여 지금은 약 7개 교회가 늘어났으나 그 교세는 지극히 미미하다. 1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고 70여명 모이는 곳이 두 곳, 30~40명 모이는 곳이 두 세너 곳, 그리고 나머지는 10여명 안팎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느꼈다.

첫째는 현재 기성교회는 너무나 안일하다는 것이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며 더더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그것은 너무나도 없다. 흔히 종교인들이 가지기 쉬운, 종교를 윤리도덕의 수양처럼 느껴면서 다니는 교인이 다른 곳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신학으로 오는 타협신학의 영향과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과 봉사에는 거민한 관심을 표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너무나 전 신앙생활에서 오는 신앙의 태만으로 영적 전쟁에는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재 세워진 교회들은 이기풍 목사님이 전파한 “예수 천당”의 복음을 다시 되찾아야 하며 사회정의 구현과 봉



앞으로 제주도는 풍부한 자원과 관광으로 머지 않아서는 문화혜택의 침단을 걸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돈 많고 관광객 물려드니 되어드는 일은 죄악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이다. 어느 여전도사님이 필자의 손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앞으로 제주도가 2~3년 안에 복음화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가 될런지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결코 지나친 추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보다 앞서 영혼구원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라오디 제아 교회의 책망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이 과거에 세워진 기성교회의 아성속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외치는 보수교회는 핍박이 크다는 것이다.

핍박의 이유는 이미 세워진 기성교회 세력이 오히려 성경대로 증거하는 보수교단,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교리를 이단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제주도에 본래 뿌리박고 있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불신 사탄의 세력과 내부적으로는 변질된 신앙과 신학으로 오는 도전들이다. 내가 듣기로는 어떤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담배 안사주느냐 먼저 온 전도사는 담배도 사주고 술도 사주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너는 전방지계 술도 담배도 사주지 않고 전도하느냐고 힐난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핍박과 도전이 참으로 심한데다 우리 총회가 거듭 분열과 싸움으로 이곳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 그 실행이 잘되지 않아 때로는 물질적 핍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교회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의 부자들이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핍박에 원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기쁨이 충만히 살아있는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계 2:9)"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다.

3. 제주도 복음화를 위한 제언

첫째로 늦기전에 복음화에 전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둘째로 젊고 지식있고 신앙이 돈독한 사역자가 많이 파송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수신학을 한 사람이 파송되어야 하겠고 단일한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며 목회하는 능력있는 일군이 파송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총회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주도 복음전략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적극 후원하여 이러한 사역자를 파송하지 않는 한 제주도 복음화에 큰 차질이 오리라 생각된다.

세째로 보수계통의 신학교 내지 성경학교 시설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제주도 복음화는 제주도민에 의하여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제주도민은 매우 배타적이므로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세워 교육시켜 자체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네째로는 여성 교역자 파송도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여성의 세력이 대단하기에 오히려 전도전략에 여성교역자 파송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중현교회가 제주도 복음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민족 복음화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제주도 자연부락 단위는 최소한 200여 호 이상 되는데 이런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다. 강원도 오지 전도도 귀하지만 제주도 대단위 부락전도도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도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본 원고는 제주도 1차 차량선교 7교회의 전도를 마치고 필자가 느낀 글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0월중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조직신학

- 1) 기독교와 살아계신 하나님(신론); 칼버, 로버트 던컨저. 1980. 142P.
 - 2) 기독교와 예수그리스도(기독론); 디머스, 브러스 에이저. 1980. 132P.
 - 3) 기독교와 인간의 타락(인간론); 홀린, 레슬리 비저. 1980. 132P.
 - 4) 기독교와 인간의 구원(구원론); 메릭슨, 밀라도 제이저. 1980. 130P.
 - 5) 기독교와 성경의 계시(영감론); 사우키, 로버트 엘저. 1980. 132P.
 - 6) 기독교와 교회의 의미(교회론); 웰리, 브러스 엘저. 1980. 131P.
 - 7) 기독교와 성령의 역사(성령론); 벌코 후, 헨드릭슨저. 1980. 128P.
 - 8) 기독교와 은사의 활용(은사론); 홀린, 레슬리 비저. 1980. 190P.
 - 9) 기독교와 종말의 세계(종말론); 웨버, 디모데 피저. 1980. 132P.
 - 10) 기독교의 근본진리(변증론); 반틸, 코넬리우스저. 1980. 99P.
- * 이상 이창우역, 한국기독교문화연구협회,

II. 도서실 소식

제 4 회 도서특강

지난 10월 19일 본 도서실에서는 황인섭목사님(한국교회속독육연구소장)을 모시고 “성경속독법연구”라는 제목으로 도서특강을 가졌다. 한국교회속독육연구소는 일반 속독법을 기초로 성경속독에 적용시킨 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본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속독력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본 도서실에서는 그 명단을 계속 접수 중에 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새 134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로서
곧 뵈렘 성내에 가 봄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댁에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천사의 이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10)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웠을때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른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을때 기뻐한다. 그러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일까?

얼마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했던 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불렀던 말인가? 그 때가 되어 부른것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아기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불렀던 말인가? 이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때 겸허한 자세로 불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빙자하여 절을 받고자 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금년 성탄절에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불러보자!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안겨 드리는 성도가 되자.

본래 이 찬송은 누가 쓴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웨이드(J. F. Wade, 1710-1786)가 1751년 그의 저서에 라틴어시로 처음 실렸고, 그후 영국 사람인 사무엘 웨브(Samuel Webbe, 1740-1816)가 1782년 그의 저서에 실렸던 것을 영국의 목사인 요클레이(Frederick oakeley, 1802-1880)가 이를 1841년 영어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불란서화한 영국인과 카톨릭교화한 영국 국교목사의 합작으로 불란서 사람이나 영국사람이나 구교도나 신교도를 막론하고 모두가 애창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찬송이 나오게 된 것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칼빈주의의 정의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우리는 흔히 장로교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칼빈주의에다가 결부시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칼빈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칼빈주의란 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특별히 취급한 하나의 포괄적인 신학적 체계인데 이것을 칼빈이 종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 한마디로 칼빈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빈이 처음으로 종합적인 신학체계를 세웠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강조점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롬 11:36)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주의의 근본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그 사상의 중심에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을 시작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도하면서 계속하는 자라 하겠다. 월필드 박사는 칼빈주의의 원리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 만물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구속하지 못할 줄 알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기는 자를 말한다.”(B. B. Warfield, Calvin as a Theologian and Calvinism Today, p p. 23-24)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칼빈주의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때 자신은 죄인이요, 피조물로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며,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의 공로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 특히 생활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즉 지적, 도덕적, 영적생활에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

나님이 되도록 결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체계를 단순히 칼빈의 종교철학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을 칼빈 한 사람의 추종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개인의 성도로 보고 있다. 칼빈주의자는 인간의 철학은 배격하고 성경이 가르치는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관계를 선포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주석을 많이 썼고 이 성경 주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그의 유산이 되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이나 기록한 칼빈의 의견을 칼빈주의의 영감된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칼빈이 성경의 놀라운 교리들을 하나의 체계를 세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세지를 밝히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완전 예정을 믿으며 구원론적 신론적, 인간론적, 교회론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어떤 새로운 종교 개혁신학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교부들의 신학 특히 어거스틴(Augustine)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거나 바뀌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칼빈은 교부들이 가르친 주요 교리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구별하여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것임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교부들이 개인적으로 주장한 비성경적인 개념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무턱대고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 칼빈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믿도록 하는 확증 없이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칼빈주의자는 가며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그들은 멈춘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도 침묵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결코 권위주의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칼빈주의자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자이며 주

석가일 뿐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절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10:23)라는 성경 말씀을 현실생활에서 확증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만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잠3:5, 6; 16:9; 사45:13; 빌2:13; 살후3:5)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중심공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 효과있는 선택과 부르심, 구원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등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9-30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3, 26-2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와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

님의 예정을 포함한다. 예정론은 칼빈주의의 중심교리는 아니다. 예정은 언제나 사람과 상관되고 사람에게 될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에게 첫째가는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안내자이며 무오의 성경은 인간을 모든 진리와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가정, 교회, 국가의 일이나 종교, 정치, 경제, 교육등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자신을 볼때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신앙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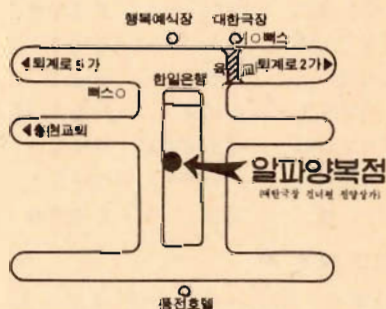
“모든 성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엡3:8-11) 그래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구원의 공덕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생각한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에게 돌아 갈 영광이나 혹은 반영된 영광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신 것이다. (*)



- 예복 · 단체복 · 특별할인
- 선물용 티셔츠 발행
- 출장주문 · 가봉 · 배달

알파양복점

운영자 김 은 호 장로



서울 · 중구 충무로 4가 125-1
(대한극장 건너편 진양상가 라열152호)

☎ 261-2876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만수선교사외 가족3명

1.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추기성례식거행

일자: 1980년 10월 5일

수세: 4명 아세: 2명

학습: 3명

2. 비자연장 및 영주권 취득 수속중

금년 12월 30일자로 끝나는 비자 연장 수속과 정글선교의 영구화를 위해 영주권 취득수속을 시작

3. 한국인 가정 소독작업

우기철을 맞아 대사관 및 한국회관 그리고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106세대의 한국인 가정 소독을 함

4. 새 사역자 파송

파송 번호	지역	사역자	연령	지위
21	기리워노	유악·까시켄	39세	목사
22	워노기리	" "	" "	" "
23	멘칠갑부	존·에디	36세	" "

5. 오지사역 현황

파송 번호	지역	사역자	결신
①	반대얀	수프요	아동 2, 장년 2
②	골로	얄민	아동 1
③	틀로고모조	스와르소	장년 2
④	수프레조	얄민	9명수세
⑥	툼툼마스	요욕	장년 1
⑫	비작	스윈도	장년 1
⑮	수디오로	수프요	아동 1 장년 1
⑯	시도와야	바르나바스	장년 2
⑱	숨버레조	쁘리바디	장년 2
⑲	우빙	얄민	9명수세

* 기도 제목 *

- (1) 수속중인 비자연장및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 (2) 오지사역자들의 열매들을 위하여

홍콩 - 홍 종만선교사외 가족 6명

1. 내향 인사 접대

1) 뉴욕교회 박희소목사

2) 에릭·리차드목사

2. 홍콩한인교회 소식

1) 10월12일: 저녁예배시 중공방문한 일본인 성도 시미즈씨의 간증 청취

2) 10월13일: 부인전도회 야외예배

3) 홍콩만목사 내외 미국에 선교여행

일자: 10월14일-31일

방문: 미국 나성의 "교회성장세미나" 참석 뉴욕에서 김창인목사내외 만남

일시귀국: 10월28일-30일 선교협의차

* 기도 제목 *

- (1) 홍콩한인교회의 후임자문제를 위하여
- (2) 중공선교를 위하여

애굽 - 이준교, 김신숙선교사외 가족 6명

1. 헬리오, 폴리스 가정교회 및 동산 살람 현장 예배 인도

2. 애굽복음주의 교단 총무 사무엘·하비브 목사를 방문 지교회 지원금 전달.

3. 10월 8일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80년도 입학식에 참석, 의료선교비를 전달.

4. 10월12일 갈라아 복음주의 교회에서 설교함.

5. 10월15일 주 이집트 거류민회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에 참석.

6. 10월17일 카스르·엘·도바라교회 미니스·압델누르목사 방문하여 대담.

7. 이선교사 자녀 석신, 석현이 현지인 학교인 성·요셉학교에 입학.

8. 11월 9일 카이로 한인교회 추기성례식 거행

* 기도 제목 *

- (1) 애굽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 (2) 현지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위하여

서독 - 육 호기선교사와 가족 3명

* 기도 제목 *

- (1) 세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2) 자체 교회 건물 매입을 위하여

호주 - 김태현선교사와 가족 4명

* 기도 제목 *

- (1)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2)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룡선교사와 가족 4명

- (1) 재아중앙교회 추기대심방 완료
- (2) 추기 성례식 거행
9월28일 수찬자수 250명
- (3) 10월15일~19일 부흥집회 실시
강사: 김창인목사
- (4) 집회 상황
주일 낮 평균 300명 출석

* 기도 제목 *

- (1) 원주민 선교의 계획을 위하여
- (2) 백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일본 - 유병세평신도선교사와 가족 4명

1. 이권사 부인성경반 계속 인도
2. 새벽기도회 인도
3. 주일 설교
4. 병원 대합실 및 환자, 직원 전도
5. 10월24일 유선교사용 자가용 구입

* 기도 제목 *

- (1) 유선교사 내외의 건강을 위하여
- (2) 전도 결신자를 위하여

인도 - 엘리야 겔간선교사

* 기도 제목 *

- (1) 선교여행중인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 (2) 인도의 영혼을 위하여

서독 - 박용삼평신도선교사와 가족 2명

* 기도 제목 *

- (1) 박사학위논문작성중인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파라과이 - 김재창선교사와 가족 3명

1. 10월10일 오후 1시 서울 출국하여 동경, 캐나다를 거쳐 11일 아르헨티나에 도착, 백목사의 영접을 받고, 12일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함. 14일 오후 파라과이에 도착 아순현교회의 교인들의 영접을 받음
2. 10월13일~14일 김창인목사 강사로 부흥집회.
3. 10월15일과 19일 설교인도, 저녁에 배서 취임감 사에배를 드림.
4. 관찰 경찰서에 외국인 등록과 이민청에 입국수속을 시작함.
5. 현지교회의 사정을 파악하고 일제 심방을 시작할 계획임.
6. 아순현교회 현황
장년: 낮 출석 평균 160명
주일학교: 100여명

* 기도 제목 *

- (1) 김목사님과 그의 가정이 현지에 곧 적응되도록

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1. 칠레에서 선교사 초청장 래도하여 출국수속중 기도요망.
2. 김창인목사내외 11월 27일귀국

해외에 계신 충현의 식구들에게!

금년에도 해외의 선교사님들과 본 선교부를 위해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성탄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귀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라며, 신년에도 선교사역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해외복음선교회 드림

□ 권찰수첩 □

- 정선현군(서양순집사 장남)과 정현자양 6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용구군(어은애권사 3남) 6일 오후 2시 CCC 회관에서
- 윤미영양(천지교회 윤해철집사 김정숙권사딸) 9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희연군과 김산옥양(청년부원) 9일 12시 세종기념관에서
- 임화택군(윤애순집사 아들) 9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 장경애양(장명규집사 김정숙권사딸) 13일 오후 2시 영빈관에서
- 하해룡군과 황성숙양(한남구역) 15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 박연수군(잠실 ① 구역 조남오씨 아들)과 김모희양 18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염권일군과 한운만양(제이성가대원) 18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이영일군(이석영씨 김복순집사 아들) 2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희석군(노인덕 집사아들) 23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여율기양(이득하집사딸) 24일 오전 11시 엠버서더 호텔에서
- 장충균군(장일준집사 정불관권사 아들) 25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현순양(유순석씨 딸) 23일 오전 10시30분 행복예식장에서
- 김남형군과 김혜숙양(제이성가대원) 23일 오후 2시 제기동 중앙교회에서
- 김홍래군(대방구역 김찬구씨 아들) 25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에서
- 기미라양(우문회권사 3녀) 27일 오후 1시 행복예식장에서
- 문재종군과 이지연양(청년부회원) 27일 12시 본교회당에서

***위로드립니다 (10월중 별세)**

- 박 길(김광태집사 조모) 2일 별세 4일 장례
- 변순철권사 10일 별세 13일 오전 9시30분 본교회뜰에서 장례
- 유화영집사(원웅철집사 모친) 21일 별세 23일 제주도에서 장례
- 천인수군(최금성집사 2남) 22일 별세 23일 장례

가정 심방에 대한 재인식(3)

4. 목적의식에 사로잡힌 심방은 바람직한 심방

전날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정을 심방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찾아가는데에 둘째 하나님의 사자는 로마서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하기 위하여 가정을 심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결코 권고나 권면이 지나쳐 정죄나 저주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항상 「이 가정에 주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다면 그 무엇을 주었겠느냐?」하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 꼭 주 예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쏟아지는 심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를 견고케 하기위해" 보고싶어 한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정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그 가정 온 식구가 주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야 하고 예화 한 마디도 그러해야 하겠고 몸짓 하나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신앙이 떨어진다든지 신앙에 반신반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에서 가정 심방 역시 그 가정에 위안과 기쁨을 안겨주는 심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에 성도가 순종하는데 있어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가정을 하나님의 사자가 심방한 후에는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위도가 넘치고 새 힘이 솟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활기찬 가정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방이 되어야 합니다.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김창인목사 귀국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70여일간의 해외 여행을 마치고 지난 11월 27일(목) 귀국하셨다.

김목사님은 그동안 캐나다·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칠레 및 영국 등을 거쳐 오셨는데 지난 9월 16일 출국하셨다.

주교 학년말 업무일정

교육위원회는 1980년도 학년말을 맞아 학년말 업무처리 요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각 부 주일학교는 일정에 맞추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 12월 7일(첫째주) - 처과장회의·제적 처리 종로·출석부정리 확인
- 12월 14일(둘째주) - 과별회의·4학기시험·종합성적집계·수로진급자 명단 확정·교적부 정리
- 12월 21일(셋째주) - 졸업사정회·수로진급준비(시상, 순서, 진행, 반편성)
- 12월 25일(성탄절) - 성탄축하예배
- 12월 28일(넷째주) - 수료·진급식
- * 졸업기념촬영은 11, 12월 중 각 부주교 사정에 따라 실시

또한 연말 종합시상에는 개군상, 정군상, 최우수상(각학년 1명), 우수상(각학년 3명), 장려상(각학년 3명)으로 했다.

전도위원회에서

군목세미나 개최

전도위원회는 새로운 군목지원 방안 및 군전도 정책수립을 위해 총회소속 군목을 초청하여 군목세미나를 지난 11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교회 유치부실에서 가졌다.

1부 예배 및 2부 세미나, 3부 좌담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군목들은 각기 그동안의 경험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군전도 업무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의 주요 관심점은 「군목의 장기 복무를 위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군목은 해군의 전동식군목을 비롯하여 육군의 오석용, 조의호, 김병선, 최용범, 권성목, 김원필 등 7명의 군목이 참석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군목세미나를 열어 효과적인 군전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년도 제직임명

교회는 1981년도 권사를 76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남·여 서리집사도 증원하여 내년도에는 권사 310명, 남집사 321명, 여집사 630명을 임명키로 했다.

한편 이 임직 임명은 11월 30일 권사 및 서리집사 임명을 시작으로 12월 첫 주에는 구역장·구역권찰, 12월 둘째 주에는 주일학교 교사, 셋째 주에는 성가대원을 각각 임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절약 예산으로

위원장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절약·건축예산으로 세운다는 원칙하에 절약이 가능한 몇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삭제하기로 하고 또한 대내외 강사료를 전부 통일키로 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삭제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월례회의비 또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의비. (단 연초, 연말의 특별회의비는 제외)
- 2) 생일축하비(주교학생제외)
- 3) 비품비(각 부서에서 책정된 비품비. 이는 당회에 청원하여 서무부를 통하여 구입토록)
- 4) 친교비
- 5) 연말시상비(교사개군, 각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 단 주교 학생의 연말 시상비는 제외함)

전도위원회 산하

각 지회 총회

연말을 맞아 각 지회의 총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해외복음선교회를 끝으로 5개 지회의 1981년도 총회를 마쳤다. 각 총회에서 선출된 신년도 회장·부회장은 다음과 같다.

- 남전도회 (11월 9일)

1980년도

월간충현 합본호 발간

월간 충현 편집실에서는 1980년도 1~12월(제73~83호)의 합본호를 발간한다.

이번 기회에 보관하고 있는 월간충현(1980년도분)을 합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 1981년 12월 14일까지
- 월간충현 1980년도 1~12월호를
- 합본 실비 2,000원과 함께 월간충현 편집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회장-이창업장로

부회장-김원선장로

• 제 1 여전도회 (11월 16일)

회장-이옥녀권사

부회장-전인화권사

• 제 2 여전도회

회장-명정옥집사

부회장-황정숙집사

• 산업전도회 (11월 2 일)

회장-오태희장로

부회장-최상규집사·전순자

권사

한편 권사회는 12월 14일에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막소식

*...권사회에서는 권사회 회지 「충현권사들」 제 2 호를 발간했다.

*...산업전도회에서는 11월 월례 초찬기도회를 11월 1 일 유년부

실에서 가졌다.

*...충현기도원에서는 11월 부흥사경회를 11월 10~14일, 11월 24~28일까지 기도원에서 가졌다.

*...유치부는 12월 24일 유치부실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중등부는 12월 7 일 면려회 정기총회를 예배실에서 갖고 12월 21일에는 면려회 친구 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는 12월 4 일 교사기도회 및 학습평가회를 영아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청년부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면려회 선교 1부 주관하에 성탄특별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년새신자부는 지난 10월 5 일 새신자부실에서 17명(남 2 명,

여 15명)에게 학습을 9월 28일에는 남 1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한편 12월 14일에는 학습반, 21일은 세례반에서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년부는 12월 14일 교사기도회를 12월 28일에는 수료생 환송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교육전도부는 12월 11일 유치부실에서 직업청소년 초청전도집회를, 20일에는 학습평가회를, 한편 면려회에서는 12월 7 일에 정기총회를 갖는다.

*...선교부는 12월 12일 철야헌신기도회를 새 성전 건축 현장에서 갖는다.

*...새가정부는 12월 21일 학생친교회를 갖는다.

각 종 통 계

1980. 11. 2. (매월 첫 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일	I 부	174	369	총세대수	3,821
		II 부	409	973		
		III 부	411	885		
		IV 부	222	557		
	계	1,216	2,784	4,000		
주일	저녁	주 일	188	398	신	교인
		삼 일	145	314		
	아침	어린새신자부	8	32	총수	남 3,299
		영 아 부	159	115		
	유치부	유 치 부	157	204	세례	여 5,076
		유 년 부	231	203		
	초등부	초 등 부	209	197	입교	남 1,791
		중 등 부	176	148		
	고등부	고 등 부	135	134	유아	여 3,348
		대 학 부	56	60		
학 교	청년부	청 년 부	68	104	교인	남 499
		장년새신자부	62	122	세례	여 338
	장년부	장 년 부	24	280		
		노 년 부	33	110	합	남 752
	산업교육부	산 업 교 육 부	13	89		
		선 교 부	36	76	원입	여 991
	새가정부	새 가 정 부	15	24		
		합	2,930	5,395	교인	남 1,743
		계	2,930	5,395		
		합	2,930	5,395	총수	남 3,299
		계	2,930	5,395		

충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수요일 예배후 9시 교회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 「경기도 광주 초월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의 행사

- 2 일 정기당회
- 7 일 정기 제직회, 81년도 각구역 권찰 임명, 재정위원회 월례회, 실업전도회 월례회
- 14일 제 1 여전도회 헌신예배
81년도 각부 주일학교 교사 임명
남전도회 월례회, 권사회 월례회
- 21일 81년도 성가대원 임명
여전도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월례회
해외복음 선교회 실행위원회
- 24일 성탄 축하 음악예배
- 25일 성탄절
- 28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구역권찰회 월례회
전도위원회 월례회

편집하고 나서

*... 어느덧 12월이다. 국내외적으로 또 교회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 주셨다. 1년을 마치면서 할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된다. 교회와 교회의 각 지회가 모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마지막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월간총현에서는 1980년~1년을 보내면서 1980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점들을 살펴 보며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몇분의 장로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대략이나마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꼭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나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큰 의의가 있는 줄로 안다. 앞으로도 월간총현에서는 자주 기회를 마련하여 장

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12월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월간총현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동화를 게재해 왔다. 금년에도 아동문학가 협회 부회장이신 박흥근선생님께서 귀한 글을 써 주셨다. 모두 일독하며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맞자. 또한 성탄특집으로 마련한 김연이전도사님의 예수님 탄생의 년, 월, 일(年, 月, 日)에 대한 글도 귀한 글로 일독을 권한다.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보고가 기회 있는대로 건축위원회를 통해 전해지지만 이달에는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등을 취급하여 보았다.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좀 더 건축에 신경을 쓰며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중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12월호

제 8 권 제 11 호

통권 제 83 호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윤 형 철

편집부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창로회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0년 12월 7일 발행

100-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기도 응답의 비결은?

질문 /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왜 기도응답이 없는지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는지요 등 기도에 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기록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으며 또 기도응답 받은 기록도 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1.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 1) 믿음없이 구하기 때문에 (마17:20, 히11:6)
- 2)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요9:31, 사59:12)
- 3) 그릇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약4:3)
- 4)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막11:25)
- 5) 중언부언하는 기도 때문에 (마6:7)
- 6) 악한 생각을 품고 구함으로 (시66:18)
- 7) 자궁하는 마음으로 구해서 (눅18:11, 사16:12)
- 8)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잠28:9)
- 9) 부부간에 불화함으로 (벧전3:7)
- 10) 불쌍한 자 돕기 싫어하는 자의 기도 (잠21:13)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냈지만 전열기구나 전기줄에 이상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2.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

- 1)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마26:39, 요일 5:14)
- 2)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의 기도 (요14:13)
- 3)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요14:14, 요16:23)
- 4)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 (요15:7, 약1:6)
- 5)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 (행10:10, 24, 31, 32)
- 6)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롬8:26, 28, 엡6:18)
- 7) 주를 기뻐하고 따르는 자의 기도 (시37:4, 5)
- 8) 주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 (시145:19, 약1:5)
- 9)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 (약1:6, 마21:22)
- 10) 죄를 자복하는 자의 기도 (눅18:13-14)
- 11) 의로운 자의 기도 (시34:15-17)
- 12)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 (시51:17, 렬9:1)
- 13) 마음이 깨끗한 자의 기도 (시66:18, 잠28:13)

- 14) 순종하는 자의 기도 (요9:31, 요일 3:22)
- 15)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자의 기도 (막11:24)
- 16)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 (빌4:6, 골4:2)
- 17)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 (요일 3:22)
- 18) 열심으로 진실히 구하는 자의 기도 (엡6:18)
- 19) 깨어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 (마26:41)
- 20) 정직한 자의 기도 (잠15:8, 29)
- 21) 스스로 겸손한 자의 기도 (대하7:14)
- 22) 악한 길을 떠나는 자의 기도 (대하7:14)
- 23)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자의 기도 (마5:23, 24, 골3:13)
- 24) 연합한 자의 기도 (마18:19-20)
- 25) 지혜를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자의 기도 (벧전3:7)
- 26)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화목을 구하는 자의 기도 (벧전3:10-12)

3. 기도하는 모양

- 1) 서서 (막11:25)
- 2) 울면서 (히5:7)
- 3) 손을 들고 (딤후2:8, 출17:11)
- 4) 소리없이 (삼상1:12-13)
- 5) 입을 벌리고 (시81:10)
- 6) 가슴을 두드리며 (눅18:13)
- 7) 무릎을 꿇고 크게 (행7:60)
- 8) 낮을 벽에 대고 (왕하20:2)

4. 기도응답의 형태

- 1) 즉시 응답 (행9:40, 요4:10, 14:14)
- 2) 점차적 응답 (눅1:13)
- 3) 간접적 응답 (행1:9-11)

이 승 근 목사 (청년부지도)

실로암
못가에서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 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14절〉